

“전주시 음식산업 전문인력 육성을”

김남규 시의원 시정질문
“관련 업무 담당 직원 없어 행정조직 간 협력 이뤄져야”
김 시장 “한식창의센터 구축”

전주시의회 김남규 의원은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 음식산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현실적 대책을 주문했다.



김남규 의원(송천동·사진)은 21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28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전주시는 그동안 관광객과 음식산업을 연계한 음식도시로서 기대만큼 큰 성과를 얻지 못했다”며 “체계적인 음식산업 관련 인력 육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주가 지난 10년 동안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로 성장했지만 음식클러스터 산업화 부문은 투자재미 산출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주시에만 7000여개의 외식업체가 지역경제의 한 축을 이루



봄을 기다리며 21일 오후 전주시 경기전 앞에서 시민양묘장 관계자들이 봄 꽃 식재를 하고 있다.

고 있지만 정작 전주에는 관련 업무를 담당할 직원이 없어 많은 음식점이 행정의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현재의 한식산업 인력구조로는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브랜드에 걸맞는 전주 음식산업의 성장과 차별화는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앞으로 일본 가나자와와 음식창의도시인 중국 청두의 식문화 산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며 “전주 음식산업화, 전주푸드플랜, 전주식재료 산업 등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주 행정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방안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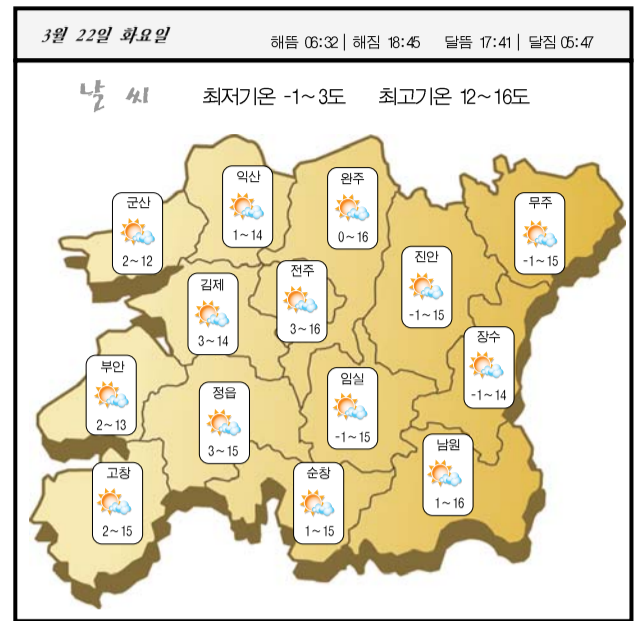
김 의원은 또 “전주시에 지난 2012년

세계 4번째 음식창의도시로 지정된 후 관광객과 음식산업을 연계하는 역할을 그동안 다 했는지 묻고 싶다”며 “체계적인 음식도시가 되기 위한 시정 방향과 음식산업 관련 맨파워 육성 방안을 설명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승수 시장은 “전주시는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지정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음식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지난해 ‘전주음식 명인·명소 등 발굴 육성조례’를 개정, 기존 향토음식인 한정식, 돌솥밥, 콩나물국밥, 비빔밥 4개 품목에서 백반, 폐백음식, 오모거리 탕 3개 품목을 추가 확대하고, 음식명인 6명, 음식명소 1개소, 음식명가 2개, 음식창의업소 12개소를 신규 지정

해 음식도시의 위상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시장은 “전주 음식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주푸드와 한식을 기반으로 한 유기농 식단, 힐링푸드, 메디컬 푸드 개발 등 음식 관련 R&D기반을 구축하고, 국제한식조리학 교를 통해 세계적인 한식 전문인력 및 전주음식 스타셰프를 양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이어 “전주를 세계적인 음식도시로 키우기 위해 한식자원을 집중하고, 전주 음식산업의 컨트롤타워로 한식창의센터를 구축해 음식산업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재 기자



김승환 교육감에게 듣는 헌법이야기

오늘 임실교육지원청 특강 등 16개 기관 월 2회 순회 실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헌법 이해 및 역사교육을 위한 2016 교육감에게 듣는 헌법이야기 특강을 실시한다. 이번 헌법이야기 특강은 22일 임실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23일 남원여고, 내달 6일 전주성삼여고 등 16개 교육기관(교육지원청 및 단위학교)을 월 2회 순회하며 실시한다. 이번 순회특강은 헌법학자인 교육감에게 헌법의 의미와 생성 배경 등

헌법 이해 및 역사교육을 위한 헌법이야기 특강을 실시한다. 이번 헌법이야기 특강은 22일 임실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23일 남원여고, 내달 6일 전주성삼여고 등 16개 교육기관(교육지원청 및 단위학교)을 월 2회 순회하며 실시한다. 이번 순회특강은 헌법학자인 교육감에게 헌법의 의미와 생성 배경 등

전북 친환경농업 실천 증가세 뚜렷

2015년 말 2,976농가 4,214ha 친환경농산물 인증 취득

전북도 농가들의 친환경농업 실천 증가 추세가 뚜렷한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친환경농업 실천 규모를 위해 조성된 친환경농업 지구 60개소의 2015년말 운영 실적은 2,976농가에서 4,214ha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4년 2,614농가 4,103ha보다 105ha(2.0%) 증가한 것으로 도내 전체 친환경농업면적(6,588ha)의 64%로 3분 2 규모이다. 친환경농업 지구조성 사업은 농경지가 10ha 이상 집단화되고 참여농가가 10호 이상인 지역에서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도의 역할 사업이다. 도의 친환경농업 인증 면적은 지난

2006년 2,966ha에서 매년 3~5%씩 증가해 2009년 3,353ha, 2012년 3,849ha로 넓혀가며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관심과 선호에 생산이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도 관계자는 “올해 군산 서수 마포지구, 옥구 이곡지구, 무주 안성지구 등 3개소에 52억원을 투자해 친환경농업 지구를 조성할 예정이다”면서 “친환경농업 실천지역의 집단화와 사업자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교육·컨설팅·브랜드 개발 등의 S/W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사업 완료 후 5년이 경과된 지구 중 인증면적이 30% 이상 증가한 우수지구에 대해 추가지원 필요성, 타당성 등을 평가하고 시설·장비 확충과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영수 기자

도, 아동학대 예방책 수립 계획

21일 전북도는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이달 말까지 아동학대 고위험군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도는 건강검진, 예방접종 미실시 아동 등을 대상으로 조사 중에 있다. 또한 신고의무 직군 종사자 교육을 위해 관련부서별로 추진계획을 수립, 올해 상반기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위원회, 실무협의회 등 네트워크를 구성해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체계적 운영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밖에 ▲학대·피해 아동의 지속적인 사후관리 ▲예방교육·홍보 ▲아동학대 예방 포럼 실시 및 아동학대 근절 시민운동 전개 등의 계획을 수립 시행 예정이다. /정영수 기자

전주시, 시민 안전지킴이 CCTV 확대

올해 16억 투입해 166대 설치·저화질 39대 고화질로 교체 방침

전주시가 시민들의 안전지킴이인 CCTV를 늘려나가고 있다. 21일 전주시에 따르면 올해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는 학교폭력과 아동 성범죄 예방 등 어린이보호와 시민 안전을 위한 방법 목적으로 총 16억을 투입해 CCTV 166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화면 식별이 곤란했던 저화질 CCTV 39대를 고화질로 교체하는 등 올 연말까지 전체 CCTV 1849대를 모두 고화질로 개설했다. 시는 전주시 전역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범죄발생 위험지역 곳곳을 24시

간 감시해 각종 사건 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CCTV의 감시에서 벗어난 범죄 시각자재를 크게 줄이고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 시민안전담당관실 관계자는 “통합센터 CCTV 영상자료는 범죄현장의 가장 유력한 목격자로 범인 검거를 위한 결정적 증거자료로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CCTV 설치를 통해 시민들의 체감 안전지수를 높여주고, 각종 범죄유발행위를 감소시켜주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생활할 수 있는 국제안전도시 전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2년 12월 개소한 전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는 관제요원 18명이 24시간 365일 근무하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그동안 범인검거 80건과 훈방 256건, 경고방송 5002건, 경찰출동 297건, 주차금지 경고방송 798건 등 6414건의 업무를 처리해 각종 범죄와 불법행위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김영재 기자

“청소년이 아름답고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제 6 회 전국 청소년 마술 경연 대회

그동안 청소년 마술 동호인들의 전폭적인 관심속에 개최되었던 전국 청소년마술경연대회가 올해로 6 회째를 맞게 되었습니다. 한국청소년동아리 전주시연맹과 전주매일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대회가 성황리에 끝날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일 시 : 2016. 3. 26 (토) 15:00 ~
장 소 : 전주 동부비전센터 5F 비전홀
주 최 : (사)한국청소년동아리전주시연맹
공동주관 : (사)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
전주매일
대회 참가문의 : (0) 전주매일 문화사업국(063.288.9700)